

贈 議政府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復

증 의정부 우의정

화산부원군

휘 복

■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관습도감은 조선 초기에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부제조는 그곳의 관장 제조 다음의 직임이다. 공이 이곳의 부제조인 관계로 거기에 소속된 기생과 영인(광대및모기자)을 불러 풍악을 갖추게 해주었다. 이를 사헌부에서 듣고 알게 되어 장령하후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게 하니 허우가 영진(환영전별)의 화음會陰을 금한 것은 이미영으로 되었고 또한 지금 장미비가 재해가 되어 성상께서 진려應慮하시는 시기에 대신들이 풍악을 울리며 연음宴飲을 하였으니 신들이 탄핵코저 하오나 풍문을 가지고 거론한다. 책망하실까 두려워 감히 거론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내 이미 알고 있다. 하는지라 물러 나오시는 탄핵하여 계문하기를 이미 무리로 술마시는 것을 금하는 영이 있었고 또한 음주를 경계하는 하교가 있었는데 다 지금 재해를 만나 진려하시는 때에 대소 신료가 마땅히 두려워하며 수성修營해야 할 터에 박신·이맹근·민의생 등이 대신으로서의 지극한 뜻을 채우지 아니하고 방언을 준수치 않으면서 공연히 연회에 참석하고 이순풍·조종생 등은 말고 있는 방언의 걸림바가 가볍지 않은데 그 위임한 뜻을 채우지 아니하고 긴요하지 않은 연고로 번거러움이 이되어 주담하기를 더럽히며 한달이 넘도록 부임치 아니하고 있다가 풍악을 동원해 전율을 하고 권복·김간·윤창·박기소 등은 의식하고 두려워 하는 바가없이 잔치에 함께 모여마셨으며 박기비·홍거안 등은 방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술과 안주를 함께 갖추어 빈객을 초청해 모았으니 모두다 아울러 부담합니다. 법률에 비추어 가·안·간·창·거소는 아울러 장90로 하고, 신과 맹근·의생·순풍·종생·복·기비는 정간대 법률을 살피고 교명을 받들어 죄를 과하되 순풍·맹근·종생·의생·복 등은 그직을 파하고 간·가·거소는 공신의 자식이되 또한그직을 파하고, 거비 또한 공신의 자식이므로 단지 그 직첩을 거두며 거안은 장70로 하고 신과 창은 전함前敵(과거의직함)을 논하지 않고도 하겠습니. 이순풍은 영양군 이몽의 아들인데 부친의 음덕으로 벼슬이 동지중추에 오르고 기해己亥(세종1년1419년에 대마도를 정벌하여 전공이 있어 자헌대부에 오르고 지난해의 파저강의 아인을 정도하어 사로잡고 8특한 것이 많아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올랐다. 그 사담첩이 관중부담하여 일찍이 경상도에 갔을 때 모친의 묘소를 배소하고 돌아오면서 상주의 기생을 데리고 왔는데 문경閔慶의 초재草材에 이르러 기생과 더불어 시내에서 목욕하고 데리고 나무 그늘로 들어가서는 기생과 음행을 한다고 크게 의쳤으니 그 음행의 평양함이 이와 같았고 실적을 올라갔다. 아무튼 전별연이 문제되어 공도 파직 되었다.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종1품직으로 승록이나 승정대부宗政大夫가 맡은 명에직이며 그는 세종의 총애를 받는 명장으로 영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이르고 위양城壤의 시호도 받았다. 그로부터 석달 가까이 지난 같은해 10월 30일자 실록의 인사이동에서 공은 판강계도호부사로 발령이 난다. 판강계도호부사는 강계도호부의 관사라는 뜻인데 도호부사都護府使가 원래 종3품이기는 직인데 품계가 그보다 높은 2품관이 갈 때 부사로 부르게는 품계가 넘치므로 판사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는 것이며 그직임은 같다. 다만 여기에서 공이 그동안 금주령 사건으로 잠시 파직되었지만 이때에 가산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된 것을 알 수 있다. 요직의 승진가도 인이조참의직에서 뜻밖의 일로 파직되어 외직으로 밀려났으니 경대부로 승진은 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여일 뒤인 세종16년 1434년 11월 21일자 실록을 보면 갑오일 이날 임금이 경복궁政廳政廳에서 백관의 조회를 받는다. 그리고 외직으로 나가는 신하의 하직인사를 받는데 그기사는 다음과 같다.

강계절제사 권복 江計節制使權復 지제령군사윤신발등사知軍營都事尹臣發等辭 인견위복말引見謂復曰 경리친원행禮離親遠行 필유은유必有隱憂 연여금강계然予念江界 經履피도 비타인소능당어非他人所能當也 차여려방강지사次予力方江之時 의거차치임宜踰如此之任 경의 체차節制使 經度대어연何何對予를 위신발말謂臣發曰 濶해대어금강계海邊今年必災 必災의해양후추自加惠賑無恤 : 강계절제사 권복과 지

제령 군사 윤신발 등이 하직하니 불러 들어 보고 복에게 말하기를 경이 어버이를 떠나 멀리 가니 반드시 숨은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계를 생각할 때 그 경계가 저들(아닌)의 땅과 연하여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는 능히 당할 수가 없는 자리다. 또한 경의 체력이 바야흐러 강장할 때에 의당히 이와 같은 책임을 맡기는 바이니 마땅히 채득하여 하되 그 조치를 베푸는 방도는 어찌 나의 말을 기다려 (늦추어) 행할 것이라. 신발에게 일러 말하기를 황해도는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 마땅히 은혜로서 어루만져 기르고 구제하라 하였다.

이로서 보면 공의 주 임무가 강계도절제사이 되 가산대부이니 강계도도절제사이고 강계부사는 판사로서 이를 겸대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그 공식 직함은 가산대부 강계도도절제사 겸 판강계부사였음을 알 수 있고 이때 그 나이가 장년으로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음이 생각된다. 그리고 세종 10년 1428년 4월 6일에 그 부친 부윤공府尹公 숙齋이 별세하였으니 세종이 어버이를 떠나 멀리 간다고 한 것은 그 모친 정부인 여흥민씨는 편모로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어찌든 세종이 인간사 이처럼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실록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신임이 두터움을 짐작케 한다. 특히 부임해 가서 변방의 일로 신속히 조치할 일이 있으면 먼저시행하고 나중에 보고하되 왕명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잃지 말라고 위임하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세종 17년 1435년 6월 5일 을사일조 실록에 공의즐거기가 실려 있다.

강계절제사권복齋江界節制使權復卒 복자자 초안동인復字子初安東人 정유중무과丁酉中武科 누천판사복판통례병이조참의累遷判通禮兵使曹參議 갑인배강계절제사계가신甲寅陞江界節制使階嘉善 지시순변향만포구자至是巡邊向滿浦口子 로우에석타중좌견이졸路遇崖石他中左肩而卒 복선사차유어력復善射且有大力 급졸말복석치及卒莫不惜之 은양공양의신溫良恭儉讓現慎 공상태중속근웅주恭向太宗女淑謹翁主 : 강계절제사 권복이 졸했다. 복은 자가 자초이고 안동인이다. 정유년 무과에 급제하여 거듭을 거서는 판사복사시判事僕侍事와 판통례원사判通禮院使를 거쳐 병조이조의 참의를 지냈다. 갑인년에 강계절제사江界節制使를 배하여 품계가 가산대부嘉善大夫였는데 이에 이르러 변경을 순시하다가 만포구자를 향하는 길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이 왼쪽어깨에 맞아 졸했다. 복은 활을 잘 쏘고 또한 여력이 있었는데 졸하게 되니 애석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아들이 일곱이니 온溫·양良·공恭·검檢·양讓·외畏·신愼인데 셋째 양효공襄孝恭은 태종太宗의딸 숙근공주淑謹翁主를 상하였다.

만포구자는 지금의 만포진滿浦鎭으로서 만주의 집안과 연락되는 압록강의 내륙 포구이다. 이곳이 강계 읍에서는 130리가 떨어진 곳으로서 당시로서는 최전방의 요충지였다. 당시의 강계부 관할은 근대의 강계군과는 달리 훨씬 커서 그 계의 강계사군江界四郡이라고 부르던 여정闕廷·무창茂昌·우에虞裔·자성慈城의 네 고을이 소속되어 있었고 특히 파저강의 아인을 막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만포구 자에도 뒤에 진을 베풀고 첩절제사를 두었기 때문에 만 포진으로 바뀌었거니와, 이때에는 거기에 진도 쳤사도 없었기에 절제사가 직접 순시를 나가 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이 낙석으로 변을 당한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개 지역의 지형이 매우 험준함 이고 마침 음력 6월 초의 장마철 이어서 지반이 빗물을 머금어 약해진 어떤 단애에 밧의 잔도接道를 지날 때 큰 규모의 낙석이 있었던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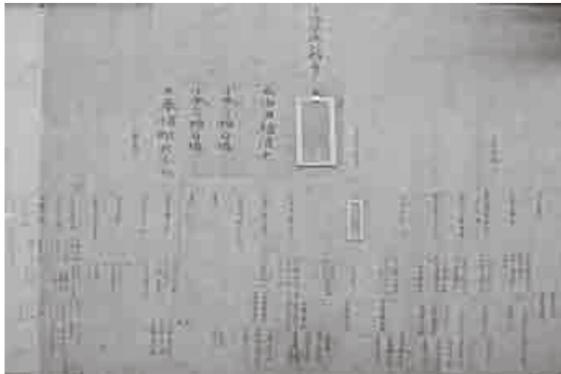
공의 향년이 얼마였는지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공은 1년 전에 떠나면서 세종이 장년이라고 칭했으니 40초반을 그리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대에 는 남자가 30세를 넘으면 장년으로 부르고 40세를 넘으면 이미 장년에서 버서 나는 것으로 통념하였다. 또한 강계부사는 문무관 간에 외직이어서 그곳을 거치면 의주부윤義州府尹 또는 목사로 옮기고 무관은 평안병사平安兵使 문관은 평안감사로 승진하는 예가 조선조를 통해서 많이 있었다. 공이 장년으로 판강계부사를 겸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불행이 없어야 라면 장차 평안관찰사를 거쳐 북진北進을 개척했던 김종서의 예와 같이 병조판서 등으로 들어와 내직의 경대부가 되기에 충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었다. 공이 졸하고 10일 만인 6월15일에 공에게 관직을 추증하는 기사가 나온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비단 필사 15세기 중단

■ 최 순 권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족도에 표기된 안동권씨족도, 경해공 권전과 현덕왕후

‘안동권씨족도 安東權氏族圖’는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로 알려진 1476년 ‘안동권씨성화보成化譜’보다 20년 정도 앞서는 가계 기록이다. 이 족도에는 문종 비 현덕왕후와 그의 아들 단종이 기재된 부첨 附添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단종 재위 시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족도 하단과 좌측의 후손들 기록은 현덕왕후가 복권된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족도는 ‘성화보’와 같이 출생 순으로 아들과 딸(사위) 모두를 실고 있다.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던 족도는 세로 61.3cm, 가로 219.8cm로, 그림 상·하부에 자주색 비단띠가 0.4-0.5cm1分5厘로 붙여 있는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현재 남아있는 조선 전기 ‘순소 작계공신교서 孫孫敬徽勳功臣教書(1467)’ 및 ‘상대계회도 霜臺契會圖(1487)’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안동권씨족도’의 가계기록

구성내용

‘안동권씨족도’는 원래 권여은權呂溫을 기점으로 현손 단종을 포함한 내의 후손들을 수록한 족도로, 후대에 권자신의 아들 권하를 기점으로 7대손 금효琴孝까지 내의후손들을 수록하였다. 여기에 336명의 자녀자손이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 맨 윗부분이 결실되

기는 했지만, 아래 내의후손들의 구성원을 볼 때, 최종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권희봉權希逢과 권백종權伯宗이다. 권백종의 경우, 이름은 결실되어 있지만, 계신 아래에 아들 권전權專과 권존權尊, 손녀 현덕왕후顯德王后(안동권씨 부정공파)가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권희봉의 경우, 육안 및 적외선 카메라 촬영에 희미하게 將權希逢이 보이고, 권이權勢·권귀령 權龜齡·권경權經진수익權受益으로 이어지는 가계(안동권씨 증윤공파)가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권여은의 사위로 ‘안동권씨성화보’에 나온다. 여기에 권여은의 자녀로는 자자 윤경允景, 민경萬

景, 여부女夫 권희봉權希逢, 자 현경玄景, 여부권백종權伯宗, 자 문경文景 등 6자녀가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안동권씨족도’에서 현재 확인되는 사람은 여부女夫 권희봉과 권백종이다. 그러던 나머지는 권여은의 아들 권윤경, 권만경, 권현경, 권문경의 후손들일 것이다. 현재 족도의 좌측에 기재된 사람들은 모두 권희봉과 권백종의 후손으로 확인된다. 출생순으로 권희봉 이후 권현경과 권문경은 ‘안동권씨성화보’에 ‘무후’라는 표기는 없지만, 무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권여은의 아들이기 때문에 족도에는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결실된 우측 부분의 경우,

雲谷書院誌

운곡서원지

〈지남호에 이어〉

예전 종중의 담통에서도 사당을 경주에 힘써 세우는 것은 ‘경주가 바로 우리 시조께서 처음 출발하신 곳이기 때문인데 이미 신라 왕조의 종친이시고 또한 경주에 공훈을 세우셨으니 이것이 어찌 옛 고향이 아니겠느냐’고 하고 그러나 ‘큰일은 비록함을 신중히 하는 것이니 거듭 원근대 첩중에서는 기호(畿湖)의 여러 종중에 두루 알려 봉안한다면 추모를 하는 처지에 천만번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진보 종중의 담통은 ‘옛사람은 선배가 한번 말[馬]을 머물고 한번 시문[詩文]을 읊은 곳에도 비석을 세우고 사당을 세워 추모하는 정성을 붙였는데 하물며 경주로 말하면 바로 우리 시조 태사공의 영기(靈氣)가 깃든 고향임에라’고 하고 아득한 세월이 흘러 비록 문헌으로 진형하는 어려우나 태사공이 ‘이미 신라 왕조의 종친이니 귀부(貴府) 경주는 옛 고향이고 창외하고 도적을 토벌한 것이 또한 여기에 있으니 귀향(貴鄉)은 또 공훈을 세운 곳인데 또 낭중공의 부인 하희의 묘소가 귀읍(貴邑)의 공암(孔巖)에 있으니 경주의 한 구역을 우리 시조에게 있어 어찌 시문을 읊고 지나간 여느 심상(尋常)한 곳과 비할 것이냐’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경기(經紀)하는 일에 대한성인데 더구나 그 자리를 가려잡은 것이 ‘산의 이름과 바위의 이름이 생김 이래로 어렵듯 서로 합쳐져 화산(火山)의 아래요 나천(羅川)의 위인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다.

동년 7월에는 일제히 모여 운곡의 묘좌(卯坐)를 등진 자리 곧 서향(西向)의 땅에 터를 정하고 그 곁에 남아 있던 옛 운천서원(雲泉書院)의 재사(齋舍)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사를 할 때 임무를 맡을 40여 명을 선정하여 망기(望記)를 내니 도감(都監)에는 진사 권정흥(權正亨)과 명하(名下)의 위인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다.

9월 27일에는 주춧돌을 배설하였다. 이 달에 경주 일대의 각처 문중에서 돈과 곡식이 모여들었는데 노당(魯堂)에는 진사 권정흥(權正亨)과 명하(名下)의 위인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다. 이 달에 경주 일대의 각처 문중에서 돈과 곡식이 모여들었는데 노당(魯堂)에는 진사 권정흥(權正亨)과 명하(名下)의 위인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다. 이 달에 경주 일대의 각처 문중에서 돈과 곡식이 모여들었는데 노당(魯堂)에는 진사 권정흥(權正亨)과 명하(名下)의 위인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다.

·단구(丹丘)·송과(松坡)·사동(沙洞)·용동(龍洞)·양릉(枉陵)·입실(入室)·태평리(太平里)·시연(紫淵) 등의 문중에서 모은 돈과 곡식이 들어왔다.

10월 9일에는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樑)을 하였는데 안계(安溪)의 참관 이현묵(李憲默)이 상량문(上樑文)을 지어 보냈다. 이 상량문에서 ‘공덕이 산악과 같이 높아 안동에 이미 높이 보답하는 의전이 있고 자손이 옛 고향에서 추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곧이어 추원사를 세우니 한 구역이 목청(穆淸 : 하늘과 같이 높다는 뜻으로 임금의 덕으로 인해 세상이 잘 다스려져 화평함을 비유함) 하디’고 하기도 ‘이곳 동방의 옛 나라 신라는 진실로 태사의 관향이니 고귀한 재물로 향화(香火)를 올림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갈절이나 더하게 한다’고 하였다. 영주의 담통은 ‘산의 이름이 화산(火山)인 것이 실로 특성(特姓)한 관향이 화산(火山 : 여기서의 화산은 안동을 가리킨다.)인 것과 부합되고 바위 이름이 사조(思朝)인 것이 추원(追遠)하는 정성과 정령 합치된다’고 하였다. 이에 8월 17일에는 인근의 국동(菊洞) 즉 국당리(菊堂里)에 있는 문종 선산과 운곡의 육림지(育林地)에서 벌목을 시작해 목재를 마련하고 진정덕(眞正德)의 육림지와 권정전(權正鎔)의 사유림에서도 나무를 벌채하여 들여왔다. 그리하여 8월 29일에는 개기제(開基祭)를 행하고 이를 기하여 국동 문중에서는 그 위도(位土)로 밭 두 섬치기[石畧]와 임야를 헌납하였다. 이날의 개기제는 묘시(卯時: 아침 8시)에 자냈는데 그 제문(祭文)에는 ‘이 경주 고을을 돌아보건대 실로 고향이요 금오산은 창창(蒼蒼)히 푸르고 경준 남천 문수(蚊水)는 탕탕(湯湯)히 흘러 천년의 문물이 완연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손이 세거(世居)하면서 처창(樓)히 사모함이 더욱 영구하여 추원(追遠)의 의논이 있더니 비로소 금년에 완정(完定)하여 이곳에 자리를 가려잡았다’고 하였다.

동월 21일에는 전사정(典祀禮)의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렸는데 이 무렵에 서울중종의 판서 권도(權導) 등 65명이 연명한 통문이 왔다. 이 통문은 시조의 고향인 경주에 사당을 세우는 것이 정리(情理)와 예의에 합치된다는 뜻으로 충청도와 함경북도 에 있는 종성인(宗姓人)의 뜻도 포함하여 보낸 것이었다. 그 내용은 ‘사당을 세우는 일은 실로 세대가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성기(盛業)입니다. 헤아리건대 우리 시조께서 이미 신라의 종계(宗系)이고 또 들으니 낭중공(郎中公)의 배위(配位) 묘소가 또한 경주에 있다고 하니 세대가 유구히 멀어져서 비록 문자로 징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리로서 일으키는 정례(情禮)는 당연한 것인즉 무릇 자손되는데 자 누가 감히 달리 하는 의논이 있겠습니까. 충청도와 함해도·함경도는 바야흐로 이 통문으로 고(告)한다’고 하였다.

‘자 권운’ 위로 붉은 색 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권운과 권연은 권만경 또는 권윤경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다만 ‘안동권씨성화보’에 권만경의 후손이 없고, 권윤경만이 여부 권직균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권만경 역시 권여은의 아들이기 때문에 족도에 기재되었을 것으로추정된다. 또한 앞부분이 결실되어 있어, 그 전말을 알 수 없지만, ‘해주오씨족도’ 등 여타 족도와 같이 권여은을 기점으로 위로는 직계조상 또는 장인의 가계가 단선적으로 기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안동권씨성화보’에 권여은이 두 번 나오기는 하지만, 단지 권성태(權成泰, 또는 권권權聖)의 사위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양측적 친속 관계를고려한다면, ‘안동권씨성화보’와 같이 권성태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족도의 자녀자손 구성을 볼 때, 당초 족도 원본은 단종 재위 기간에 작성한 권여은의 6녀녀 자손도 子女子孫圖로보여 진다. 여기에 250명의 자녀자손이 확인된다.

이 원본에다 후대에 권자신의 아들 권하를 기점으로 자녀자손이 수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86명의 자녀자손이 확인된다. 여기에다 원본과 같이 출생순으로 남녀를 기재하였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후손들을 위아래 또는 좌우로 적고, 붉은 색 계선으로 계보 관계만 나타내었다. 추록 내용은 권하의 아버지 권자신이 사육신 사건으로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고 파직되었기 때문에 매우 소략하다.

현재 안동권씨 부정공파 족보에도 족도와 같이 기재내용이 매우소략하다.

〈다음호에 계속〉

한편 안동의 대종중 능동재사(陵洞齋舍)에서는 권문(權門)을 대표하여 추원사(追遠祠)를 창건하는 취지를 알리고 가부를 구하는 통문을 열

음(尺牘)에 보냈다. 향교(鄕校)로서는 경주의 향교에, 묘원(廟園)으로서 는 안동 부읍(附邑)의 태사묘 송보당(崇報堂)에, 그리고 영남 일대 열읍의 서원과 문중에 보낸 것이다. 능동재사 이의 높이 보답하는 의전이 있고 자손이 옛 고향에서 추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곧이어 추원사를 세우니 한 구역이 목청(穆淸 : 하늘과 같이 높다는 뜻으로 임금의 덕으로 인해 세상이 잘 다스려져 화평함을 비유함) 하디’고 하기도 ‘이곳 동방의 옛 나라 신라는 진실로 태사의 관향이니 고귀한 재물로 향화(香火)를 올림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갈절이나 더하게 한다’고 하였다. 영주의 담통은 ‘산의 이름이 화산(火山)인 것이 실로 특성(特姓)한 관향이 화산(火山 : 여기서의 화산은 안동을 가리킨다.)인 것과 부합되고 바위 이름이 사조(思朝)인 것이 추원(追遠)하는 정성과 정령 합치된다’고 하였다. 이에 8월 17일에는 인근의 국동(菊洞) 즉 국당리(菊堂里)에 있는 문종 선산과 운곡의 육림지(育林地)에서 벌목을 시작해 목재를 마련하고 진정덕(眞正德)의 육림지와 권정전(權正鎔)의 사유림에서도 나무를 벌채하여 들여왔다. 그리하여 8월 29일에는 개기제(開基祭)를 행하고 이를 기하여 국동 문중에서는 그 위도(位土)로 밭 두 섬치기[石畧]와 임야를 헌납하였다. 이날의 개기제는 묘시(卯時: 아침 8시)에 자냈는데 그 제문(祭文)에는 ‘이 경주 고을을 돌아보건대 실로 고향이요 금오산은 창창(蒼蒼)히 푸르고 경준 남천 문수(蚊水)는 탕탕(湯湯)히 흘러 천년의 문물이 완연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손이 세거(世居)하면서 처창(樓)히 사모함이 더욱 영구하여 추원(追遠)의 의논이 있더니 비로소 금년에 완정(完定)하여 이곳에 자리를 가려잡았다’고 하였다.

동월 21일에는 전사정(典祀禮)의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렸는데 이 무렵에 서울중종의 판서 권도(權導) 등 65명이 연명한 통문이 왔다. 이 통문은 시조의 고향인 경주에 사당을 세우는 것이 정리(情理)와 예의에 합치된다는 뜻으로 충청도와 함경북도 에 있는 종성인(宗姓人)의 뜻도 포함하여 보낸 것이었다. 그 내용은 ‘사당을 세우는 일은 실로 세대가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성기(盛業)입니다. 헤아리건대 우리 시조께서 이미 신라의 종계(宗系)이고 또 들으니 낭중공(郎中公)의 배위(配位) 묘소가 또한 경주에 있다고 하니 세대가 유구히 멀어져서 비록 문자로 징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리로서 일으키는 정례(情禮)는 당연한 것인즉 무릇 자손되는데 자 누가 감히 달리 하는 의논이 있겠습니까. 충청도와 함해도·함경도는 바야흐로 이 통문으로 고(告)한다’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